

■ 2026년 공연예술창작주체(창작공간) 음악분야 심의 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6년 공연예술창작주체(창작공간) 음악분야
- 회의일시
 - (1차 서류심의) 2025년 12월 11일(목) 14:00~18:00
 - (2차 인터뷰심의) 2025년 12월 18일(목) 9:30~18:00
- 회의장소 : 대학로 메이플레이스 호텔 컨퍼런스룸 1
- 심의위원명(가나다순) : 노승림, 손창우, 신호경, 임기현, 최원선, 한경진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실시하는 공연예술창작주체 사업 중 본 창작공간 지원사업은 공연예술관련 창작공간을 운영하는 민간 예술단체를 지원하여 생태계를 더욱 다양하게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창작자들이 새로운 관객과 시장을 개척하도록 지원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지원금 수혜 이력을 1회 이상 보유한 단체에게만 신청 자격을 주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에는 신생 단체 발굴을 위하여 지원금 수혜 이력을 자격요건에서 삭제하였으며, 대규모 유형으로 지원한 단체의 경우 지역거점형 프로그램 운영을 이행 조건으로 신규 추가하였습니다. 사업 및 장르별 접수 비율을 고려해 총 168백만 원의 예산이 배정된 2026년 음악분야 창작공간 사업에는 총 10개의 단체로부터 1,119백만 원의 지원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제출된 지원서와 활동 이력을 바탕으로 1차 서류 심의를 거쳐 4개 단체를 2차 인터뷰 심의 대상으로 선정, 서류 심의에서 파악하기 힘든 개별 사업의 특성에 대해 질의하고 단체들이 지닌 '창작주체'로서의 역량과 비전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최근 공연장 관련 크고 작은 사고가 반복됨에 따라 공간 안전전담 인력을 포함해 안정된 운영을 위한 행정 인력이 고정적으로 확보되어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점검했고, 음악 전문 공연장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한 조직 구성과 공간의 잠재력을 파악하고자 했습니다.

무엇보다 심의위원들은 공간의 정체성 강화를 위한 자체 공연기획과, 공간의 외연 확장과 공연계 상생을 위한 외부 예술가 및 예술단체와 협력하는 공동기획 프로그램에 초점을 맞추고 중점적으로 논의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심의 결과, 선정된 단체들은 전략적인 운영으로 공간에 대한 명확한 정체성을 이미 확보하고 있었으며, 고정 관객 확보를 위한 향후 중장기 계획을 비교적 체계적으로 세우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위원단은 다수 지원단체의 창의적인 기획력에 깊은 인상을 받았지만 이를 뒷받침할 홍보와 운영 전략에는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가졌습니다. 운영하는 공간 및 단체의 장단점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각 프로젝트를 통해 새로운 관객을 개발하고 그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관성에서 벗어나 보다 새롭고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본 사업의 공동기획 프로그램은 사업 공고 내용대로 외부 예술가, 예술단체와 공연장이 협력하는 공동 기획·제작 공연을 진행해야 합니다. 선정된 모든 단체는 공동기획 참여 단체를 구성할 때 공연장 대표자가 예술감독, 기획 등 직·간접적으로 운영에 관여하는 단체는 포함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단체 교체 및 변경 계획 관련 부분은 사업 착수 전 심의위원회 및 사무처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확정해야 하며, 이를 통해 당초 계획이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 사업 공모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신 모든 단체에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선정된 단체들에는 축하의 말씀을 전하며 부디 훌륭한 운영을 통해 공연 문화의 다양성과 질적 향상에 기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심의위원 일동